

英語學習에 있어서 構文上的의 干涉

— Passive Voice를 中心으로 —

Syntactical Interference in Learning English

—With the Emphasis on the Passive Voice—

專 講 朴 孝 明

H. M. PARK

차

- I. 머리 말
- II. Interference에 대하여
- III. Contrastive Analysis에 대하여
- IV. 영어와 국어의 수동태의 대조분석
- V. Questionnaire의 작성 및 Test

레

- VI. Test 결과의 분석 및 검토
- VII. 결 론
Abstract
Bibliography

I. 머리 말

본고는 영어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이미 내재화된 국어 동사 피동성 규칙의 통사상(일부 의미상) 간섭현상에 대하여 실제 학습현장에서 조사하고 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주요 주제는 양국어간의 동사 사동 및 피동의 엄밀한 비교 연구와는 입장이 다른, 영어 학습자간에 예견되는 사동·피동성의 가능한 오류반응을 관찰한 보고서이다.

외국어 학습은 다른 학습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로 및 학습지시(교사), 그 밖의 제요인의 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교육과 학습은 목표하는 한 사물의 정점을 향한 학습자, 학습지시 및 학습자료의 3면으로 이룩한 삼각추(三角錐)를 형성한다. 이상적인 혹은 효율적인 교육·학습에는 따라서 제 조건에 이상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모국어룰 이미 알고 있는 성인의 경우 애초부터 장애(이상적이지 못한)를 숙명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 요인은 학습자 자신을 위시해서 교수지시와 교육자료에서 극복되어야 할 당위이다. 이때 비로소 다른 학습조건과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다. 환언하면 다른 학습조건과는 달리 학습과정에서 부단한 장애에 부딪치고 따라서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로 그만큼 학습이 어렵다는 말이 된다.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그언어가 지닌 규칙의 체계를 내재화 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¹ 영어학습은 결국 영어가 갖는 규칙체계를 익히는 것이어서 실제로 언어 능력의 형성

1. Wilga M. Rivers, "Rules, Patterns, and Creativity in Language Learning," *English Teaching Forum* VIII, 6 (Nov. -Dec, 1970,) p.7.

기라는 3~13세²를 지난 중학교과정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므로 이미 다듬어진 국어의 언어체계에 새로운 또 하나의 영어라는 언어체계를 익혀야 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모국어를 일단 익힌 사람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 두 언어의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의 similarities와 contrasts가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양국어간의 interference가 일어남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interference가 실제 학습자에 일정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음운상, 문법상 및 의미상으로 거의 무한에 가깝도록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지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interference 중에서 통사적인 구문에 있어서 동사의 능동 및 피동성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학습현장에서 관찰될 수 있는 자료에 따라서 분석을 시도하는데 그 방법으로 서양 국어의 피동구조를 비교 학습시킨 집단과 학습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간의 반응차를 test를 통해서 측정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II. Interference에 대하여³

Robert Lado는 간섭에 관해 전이(transfer)란 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e know from the observation of many cases that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native language tends to be transferred to the foreign language. The students tend to *transfer* the sentence forms, modification devices, the number, gender, and case patterns of his native language.”⁴

즉 모국어의 문법구조가 외국어에 전이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며 또 그는 그의 저서 *Language Teaching*의 facilitation과 interference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When the native language facility involves language units or patterns similar to the new ones to be learned, there will be either facilitation or interference

2. 李季順, “Contrastive Analysis의 理論과 方法,” 言語教育, I, 1 (1969. 4), p. 40.

3. Interference라 하면 우리 말로 간섭, 간섭방해, 장애, 저해 등으로 표현하며, 영문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용어는 본래 율항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주파수의 상호간섭이라는 뜻이다.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The disturbing effect exerted by the learning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previously learned act with which it is consistence. 본고에서는 “간섭”으로 표기한다.

4.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p. 56.

in learning depending on the degree of functional similarity.”⁵

즉 모국어와 외국어의 문형이 비슷할 때는, 그 기능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서 언어 학습에 도움(facility)도 되고 방해(interference)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언어의 구문 구조가 유사하더라도 방해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간섭을 정의하기를

“Added difficulty in learning a sound, word, or construction in a second language as a result of differences with the habits of native language.”⁶

라 하여 간섭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모국어의, 언어습관(the habits of the native language)과 외국어의 언어습관(the habits of foreign language)의 차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Newmark 는

“The problems of interference in language study thus arises only under conditions in which two different sets of responses are to be made to the same set of stimulus, or more generally, in the same stimulus field. Such conditions are met in certain traditional translation grammar procedures, but they are also met in courses devised by linguists in which the students' attention is called explicitly or implicitly to a contrast between the native and target language. What linguists have typically not done consistently in planning language is to minimize the conditions that lead to interference.”⁷

라 하여 외국어 학습에 있어 간섭은 외국어에 대한 무지(ignorance)로 보고 있다.

“By phenomena of interference I mean those instances of deviation from the norms of a language which occur in the speech of a bilingual as the result of his familiarity with another language, i. e., as a result of language contact.”⁸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Weinreich 는 language contact 의 결과 파생되는 언어규범의

5. Robert Lado,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 Hill, Inc., 1964, p. 40.

6. Ibid., p. 127.

7. Leonard Newmark and David A. Reibel, “A Minimal Theory of Language Learning,” (Abstracts for LSA meeting, July. 26-27, 1963) mimeographed, p. 7.

8. Uriel Weinreich, “On the Description of Phonic Interference,”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Harold B. Allen, ed. McGraw Hill Book Company, New York, N. Y. 1965, p. 126.

여러 경우로 보아 이러한 것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부분적 동일시(partial identity)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하나는 두 언어습관의 차이 즉 두 언어구조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학습하려는 target language에 대한 무지(ignorance)로 보며 제3자의 경우 간섭이란 좀 더 포괄적으로 언어접촉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결국 이 3가지의 견해는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target language의 구조를 모른다는 것을 전제함과 동시에 이미 어떠한 다른 언어체계 혹은 언어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언어 접촉의 결과로 모든 언어학적 level 즉 phonological, syntactical, semological level에서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Robert Lado는 이러한 syntactic interference 외에도 Spain의 투우(bullfighting)를 예로 들고 있다. 투우 구경은 Spain 문화에서는 한 운동경기와 같은 것으로 소의 힘에 대한 인간의 용감성과 기교의 승리를 한 오락물로 즐기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인을 제외한 외국인이 그 옆에서 구경한다면 그 의미는 아주 달라져 칼과 화려한 만토로 무장한 한 사나이가 무방비의 동물을 죽이니 참혹하고 잔인하다고 생각되리라고 말하고 있다.¹⁰ 이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해서 오는 사고(思考)의 차이를 나타내는 한 예이다. 언어를 한 문화의 매개체로 생각할 때 어떠한 문화의 특성을 담고 있는 그 언어와 그에 대응하는 다른 언어 사이에는 의미하는 바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문화형의 차이가 양국어에 간섭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간섭은 언어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structural interference와 언어체계 외적인 요소에서 일어나는 cultural interference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양국어의 언어체계 내적, 외적인 요소에서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외국어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간섭이 일어난다는 결과가 된다. Weinreich 등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언어 체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학습상 문제는 증가된다고 말하고 있다.¹¹ 외국어 학습을 통하여 외국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성이 증가 일로에 있는 현실정은 차치하고라도 외국어 교육의 4대 목표 중의 하나가 “특히 외국문화와 비교 평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한국 민족의 전통과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여 민족의식의 양양과 독립 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와 국제정의의 정신을 기르는 데 있다.”¹²는 문화적 측면까지 감안할 때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외국어 교육을 그 언어 체계의 규칙을 습득하고 또한 내재화하는 것이라고 할 때 두 언

9. 大内茂男, 干涉について, 現代英語教育, (研究社), III, 7. p. 31 참조.

10.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p. 110.

11. 大内茂男, “干涉について,” 現代英語教育, (研究社), III, 9. p. 38 참조.

12. 高光萬, “英語教授法,” 英語學概論, 英美語學文學叢書 (8), (新丘文化社, 1967), p. 315.

어체계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섭현상을 어떻게 감소 내지 이상적으로 해소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철저한 양국어의 contrastive analysis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대립하는 견해가 있다.

Ⅲ. Contrastive Analysis에 대하여

Contrastive analysis라 함은 2개의 particular language를 상호 대조하여 그 언어학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일컫는다. Contrastive analysis는 두 개의 particular language의 대조를 절차로 여러 개별언어로 확장함으로써 linguistic universals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 개의 particular language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학습상의 degree of difficulty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의 자료로 사용한다 함은 대조분석될 두 개의 개별언어 중 어느 하나가 학습자의 모국어이고 다른 하나가 목표대상어인 경우에 목표대상어가 가진 모국어와의 차이점이 learning problem이 된다는 전제에서이다.

언어교육에 contrastive analysis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첫째로 외국어 교육에 대조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면,

외국어 습득과정에는 모국어와 목표대상어간의 차이로 인해 학습상 난점이 생기며, 모국어 습성이 외국어 학습에 간섭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와 간섭으로 인한 학습상 난점을 가장 잘 훈련 극복할 수 있도록 꾸며야 한다. 따라서 contrastive analysis는 교재구성의 절대적 선행조건이며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대상어와의 대조분석의 지식을 갖추어야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Frie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The evidence we have seems to lead to the conclusion that any adult who has learned one language can learn another within a reasonable life if he has sound guidance, proper materials, and if he cooperates thoroughly. The most effective materials are those that are based upon a scientific description of the language to be learned, carefully compared with a parallel description of the native language of learner."¹³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Newmark and Reibel의 대조분석 무용론도 있다.

13. Charles C. Fries,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5, p.9.

"The logical flow that underlies the empirically inadequate recommendations arises when linguists from the fact that languages are structured, and structured differently, the specious conclusion that the language teacher or course writer must himself impose the grammatical ordering of the pedagogical material and that the closer the ordering of the material follows some particular linguistic theory, or successful grammar, the more efficient and more successful the learner will be in using the language. The excessive preoccupation with contribution of the teacher has distracted the theorists from considering the role of the learner as anything but a generator of interference; and preoccupation with grammatical structure has distracted them from considering that learning a language means learning to use it."¹⁴

이는 어린이 문법체계에 따른 structurally ordering이 되어 있지 않은 일상생활의 말을 듣고 문법체계를 익혀 쓸 수 있는 점에서 인간의 언어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structure drill이 외국어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필수요건이라는 생각은 언어가 patterned speech habits이라는 가정에 근거하며 또한 대조분석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 교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는 모국어와 목표대상어와의 구조적 상충이 learning problem의 원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학습자의 language learning capability를 무시하고 언어학자나 교사 자신의 문법체계를 기초삼아 교재내용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잘못이며, 둘째로 간섭현상이라는 개념은 자극(stimulus)에 대하여 다른 반응(response)을 습득 시키려는 경우에 먼저 배운 반응이 그 뒤에 배우게 되는 반응에 저해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 현상이 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The term 'interference' is appropriately used to describe a phenomenon observable in experiments in which different sets of responses are to be learned to the same sets of stimuli. In that case the previous learning of a certain set of responses may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he learning of a new set."¹⁵

이는 이미 습득한 학습내용과 새로 배울 학습내용을 동일한 자극장(the same stimuli

14. Leonard Newmark and David-A. Reibel, "A Minimal Theory of Language Learning," pp. 3-4.

15. Ibid. p. 7.

field)에 끌어들여 간접현상을 촉발조장한다는 뜻이며 대조분석에 입각한 교재는 명시적(明示的)이건 암시적(暗示的)이건 간에 학습자의 관심을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에 끌어들임으로써 간접현상을 유발하는 동일자극장을 이루어 놓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극단적인 편중된 경향을 지양하고 이 양자를 절충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즉 Wolfe¹⁶의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

I want to study.

We need to work.

They have to go.

We wish to stay.

의 내면에 있는 구조를 배우고 나서

I must study.

We should work.

I can go.

They will stay.

의 내면구조를 배울 때

*I must to study.

*We should to work.

*I can to go.

*They will to stay.

로 그릇된 문장을 쓰게된다. 이는 양국어의 구조상 상충에서 오는 간접현상이 아니라 영어 자체내의 변형에서 오는 간접현상이다. 따라서 양국어간의 대조분석의 우선보다는 “학습대상어 자체의 대조분석이 선행해야 하고 대조분석 그 자체는 학습방안이 될 수는 없고 다만 교육자료의 준비를 위한 교과서 편찬자의 예비자료로서 나아가서는 유능한 교사이기 위한 한 참고자료로서 학습지도를 효율화할 수 있다” 는 절충적 입장을 보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Newmark 등의 무용론에도 문제는 있다. 첫째 어린아이의 모국어 습득과정과 이미 모국어 체계를 익힌 학습자의 외국어 습득과정이 똑 같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양자가 같은 경우 모국어 학습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시간상의 차이가 있고, 둘째로 대조분석이 도리어 간접현상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는 교사가 아무리 모국어 사용을 피하고 어떤 한

16. David L. Wolfe, "Some(Theoretical Aspects of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Language Learning*, XVIII, 3, 4,) (1967) pp. 179-182.

17. 趙明源, "Contrastive Analysis의 限界," 어학교육, 전남대학교 어학연구, 1969) I, 1. p. 48.

situation 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대조분석과 거리가 먼 교재를 선택 사용하더라도 실제 교육현장의 학습자는 학습 할 어떤 말이 주어졌을 때 그 말에 상응하는 의미내용을 생각하게 되며 그 의미내용이 모국어적 구조를 유발해내게 된다. 따라서 모국어 사용 여부나 대조분석적인 교재구성에 상관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동일한 자극장(刺戟場)을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이상의 3가지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대조분석 그 자체가 외국어 교육방법의 최상의 방법일 수는 없으며, 외국어 교육에 아무런 효용도 지니지 못하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외국어 교육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치 무대 위의 기초작업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유능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어와 영어의 상호간의 similarities 와 contrasts 를 대조분석을 통해서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다.

IV. 영어와 국어의 수동태의 대조분석

본란에서 의도하는 대조분석은 Lado 가 주장한 대조분석방법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육론적 입장의 questionnaire 및 test 문항 작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¹⁸

1. 영어 피동

- (1) The boys repaired the car.
→ The car was repaired by the boys.
- (2) They considered her pretty.
→ She was considered pretty (by them).
- (3) He believed John to come.
→ John was believed to come by him.
- (4) The contractor made me sign the paper.
→ I was made to sign the paper by the contractor.
- (5) They doubt that you will go.
→ That you will go is doubted(by them).
→ It is doubted(by them) that you will go.
- (6) That you came early surprised me.
(=It surprised me that you came early.)
→ I was surprised that you came early.에서

18.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pp. 51~74.

English Active: X+NP₁+Aux+VT+NP₂+Y 는

English Passive: X+NP₂+Aux+be+VT+en+(by+NP₁)¹⁹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국어 피동

(1)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다.

→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기다.

그 개가 나를 물었다.

→ 나는 그 개에게 물리었다.

(사람이) 천년 전에 이 글씨를 썼다.

→ 천년 전에 이 글씨가 (사람에 의해) 쓰이었다.

(2) 악당이 그를 결박 했다.

→ 그는 악당한테 결박 당했다.

→ 그는 악당에 의해 결박되었다.

→ 그는 악당에게 결박받았다.

(3) 강감찬 장군이 적을 막았다.

→ 적은 강감찬 장군에 의해 막아졌다.

포졸이 죄인을 묶었다.

→ 죄인이 포졸에 의해 묶여졌다.

그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았다.

→ 피카소의 그림이 그에게 보여졌다. 에서

Korean Active: NP₁+ $\left\{ \begin{array}{l} \text{는} \\ \text{이} \\ \text{가} \end{array} \right\}$ +NP₂+ $\left[\begin{array}{l} \text{을} \\ \text{를} \end{array} \right]$ +VT

Korean Passive:

(1) NP₂+ $\left\{ \begin{array}{l} \text{는} \\ \text{이} \\ \text{가} \end{array} \right\}$ +NP₁+ $\left\{ \begin{array}{l} \text{에게} \\ \text{한테} \\ \text{에 의해} \end{array} \right\}$ +VT+ $\left\{ \begin{array}{l} \text{이} \\ \text{히} \\ \text{기} \\ \text{리} \end{array} \right\}$.

(2) NP₂+ $\left\{ \begin{array}{l} \text{는} \\ \text{이} \\ \text{가} \end{array} \right\}$ +NP₁+ $\left\{ \begin{array}{l} \text{에게} \\ \text{한테} \\ \text{에 의해} \end{array} \right\}$ +VT+ $\left\{ \begin{array}{l} \text{당하다} \\ \text{받다} \\ \text{되다} \end{array} \right\}$.

(3) NP₂+ $\left\{ \begin{array}{l} \text{는} \\ \text{이} \\ \text{가} \end{array} \right\}$ +NP₁+ $\left\{ \begin{array}{l} \text{에게} \\ \text{한테} \\ \text{에 의해} \end{array} \right\}$ +VT+ $\left\{ \begin{array}{l} \text{아} \\ \text{어} \\ \text{여} \end{array} \right\}$ +지다.²⁰

19. 여기에 사용한 기호는 변형문법에서 사용한 기호이나 기술의 편의상 사용했을 따름이다.

20.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1961), p. 409.

3. 양국어 비교

(1) 영어는 능동의 NP₁과 NP₂가 피동에서 VT의 앞뒤로 바뀌며 NP₁ 앞에 by를 붙인다. 국어에서는 NP₁과 NP₂의 어순이 바뀔 수 있으나 문법적 의미는 없고²¹ 그 위치보다는 NP₁ 뒤에 붙은 “는/이/가”가 “에게/한테/에 의해”로 바뀌고 NP₂ 뒤의 “을/를”이 “는/이/가”로 바뀐다.

(2) 영어 능동의 VT는 피동에서 be+VT+en이 되고 국어의 피동은 동사에 따라 “이, 히, 기, 리”를 동사어간 직후에 삽입한다. 국어의 “NP+하다”형의 동사는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 “NP+받다”, “NP+당하다”, “NP+되다”의 전부 혹은 그 중의 어느 둘, 혹은 하나의 형태를 취한다. 또한 모든 동사에 감목법 어찌꼴(資格法副詞形) “아/어/여”를 동사어간 직후에 삽입하여 “지다”를 보탠다.

(3) 영어의 passive transformation은 VT에 적용되며 국어의 피동도 VT류에 적용된다. 국어의 VT류는 본래의 동사류와 “NP+하다”류의 두 종류가 있다.

(4) 영어의 VT 중 causative는 complement로 쓰인 root-infinitive가 피동에서는 “to”를 갖는다.

(5) 영어의 NP₂가 한개의 문장인 경우에는 피동에서 VT앞에 설 수도 있고 VT나 NP₁ 보다도 뒤에 올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VT 앞의 NP₂의 자리에 “it”을 대입한다.²³ 영어의 NP₁은 한 개의 문장인 경우에는 피동에서는 반드시 VT 뒤에 오되 by가 선행하지 않고 다만 that-clause를 이룬다.

V. Questionnaire의 작성 및 Test

양국어의 피동태 구조의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가를 test를 통하여 얻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대조분석에 의하여 얻어진 자료를 기본으로 다음의 6가지 범주에 관점을 두었다.

1. 국어의 피동문이 영어의 피동문인 경우.
2. 국어의 피동문이 영어의 능동문인 경우.
 - 가. 국어의 피동문이 영어의 능동문으로 불완전 자동사로 표현되는 경우.
 - 나) 국어의 피동문이 영어의 능동문으로 완전 자동사로 표현되는 경우.
3. 의미상 피동문이 영어에서 능동문으로 표현되는 경우

21. “나는 너를 미워한다”의 피동태, “너는 나에게 미움을 받는다”에서 “나에게 너는 미움을 받는다”와 같이 어순이 바뀌어도 뜻은 변하지 않는다.

22. 최현배, 우리말본, pp. 418~419 참조.

23. Roderick A. Jacobs and Peter S. Rosenbaum,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Blaisdell Publishing Company, 1968, p. 184.

4. 국어의 피동문이 영어의 accusative with infinitive의 형태에서 passive transformation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

5. 영어의 NP₂가 긴 경우의 피동태.

6. 국어의 능동문이 영어의 피동문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리고 questionnaire의 내용 중에는 동일한 범주 내에 둘 혹은 세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엄밀하게 고찰하여 정선된 문항이라 하더라도 한개의 항목만으로 그 범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러한 동일범주내의 문장을 각기 인접시키지 않고 문제지 상에 거리를 둔 것은 수험자로 하여금 동일범주내에 속하는 것을 알아 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writing을 채택하여 questionnaire를 작성한 이유는 실험 대상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어휘, 구조, 문형 등 영문 전체의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passive structure 면을 test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writing에 있어서 어휘력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속하므로 가능한 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어휘로 한정하였다.

Questionnaire의 test는 1972년 7월 7일 2교시(09:00~09:50)에 시내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각자 사전을 보는 것을 허락하고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개인 학생의 성적에 참고한다는 전제하에 50분간에 걸쳐 실시했다.²⁴

Test 문항

1. 이 꽃은 장미꽃이라고 불리운다.
2. 문이 열렸다.
3. 책이 잘 팔린다.
4. 한 여인이 강도에게 살해당했다.
5. 설탕 값이 곧 떨어질 것이다.
6. 날이 어두어지고 있다.
7. 해가 서산 뒤로 사라진다.
8. 하늘의 별이 밤에 보인다.
9. 그의 아내는 창백하게 보인다.
10. 아버지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있다.
11.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졌다.

24. 동일한 시간에 실시한 것은 시간의 경제도 되어지고, 실험대상이 같은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2.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혼잡했다.
13. 나무 위에서 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들린다.
14. 모든 학생들은 그 결과에 만족했다.
15. 금년 겨울에는 눈이 적게 올 것이라고 말해진다.

Ⅵ. Test 결과의 분석 및 검토

1. 분석기준 및 절차

이 test의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기 이전에 그 타당도와 방향 및 의도를 결정하는 몇가지 점을 밝히고자 한다.

(1) 피실험집단 대상의 동일성 기준

Test에 대한 정밀성과 이에 따른 측정의 타당도는 그 대상이 어떻게 조직 내지 편성되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본 test와 측정은 자연과학 실험에 있어서와 같은 정밀한 동일조건은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한 동일교내의 학급으로 성적순에 의하여 S자형 편성이 되어 있으며 동일한 주당 학습시간수와 동일한 지도교사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표집산출의 동일한 대상으로 보기로 한다.

(2) Test에 부과되는 내용의 학습(기준)

모든 지식의 측정은 측정대상이 그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느냐 혹은 습득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측정의 타당도를 결정지어 준다. 측정의 내용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 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마치 불모지에 가축을 방목하여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본 test에 부과된 내용인 passive structure는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 및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진학지도 계획에 따른 수업을 받은 기회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2회 이상 교육된 내용이다.

(3) 대상의 구분 기준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거나 혼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을 구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test를 실시하기 일주일 전에 2개 학급에 국어와 영어의 피동태 구조를 복습시켜 이제까지의 교육 내용을 상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급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2학년 진급 후에 교육을 받은 집단과 전연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으로 양대별 하였다. 이는 대상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 타당도는 상호 대립하는 대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본체를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오류 평가의 기준

(가) 관점의 단일화

흔히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 이는 개개의 사항에만 몰두하고 전체로서의 안목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다. Test 문항 자체가 피동구조를 포함한 영문전체의 표현을 요구하므로 자칫하면 그 이외의 사항에 관심을 갖기 쉽다. 여기에서는 피동구조와 관련이 없는 오류는 무시해 버리고 피동구조와 관련된 오류에 초점을 맞춰 관점을 단일화 하기로 한다.

(나) 문장의 구조적 및 의미론적인 양면에서의 관찰

문장구조는 문장의 구성요소가 질서있게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달하는 의미가 내부적 모순(internal contradiction)을 포함하거나 전혀 사실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되면 주어진 cue에 합치하는 문장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구조의 변화는 있을 지라도 내포하는 의미가 같으면 이는 맞는다. 즉 주어진 cue에 대응하는 통사론적이고, 의미론적인 문법성(grammaticality)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주어진 cue가 피동구조라 하더라도 능동구조로 표현하여 동일한 혹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으며, 피동 구조라 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전달할 때에는 오류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전술한 바 상이한 6가지 관점과 4개의 전제조건에 입각하여 간섭현상이 어떠한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 검토하기로 한다.

2. 분석 및 검토

(1) 국어의 피동태가 영어의 피동태로 나타나는 경우

국 문

- a. 쥐 한마리가 고양이에게 잡히었다.
- b. 이 글씨는 천년전에 쓰이였다.
- c. 그녀의 옷이 구부러진 못에 걸려 찢어졌다. (찢기였다.)
- d. 그는 밤중에 돈을 도난당했다.
- e. 거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다.

영 문

- a. A rat **was caught** by the cat.
- b. This letter **was written** a thousand years ago.
- c. Her dress **was torn** by the hooked nail.
- d. His money **was stolen** at midnight.
- e. A beggar **was despised** by the villagers.

위에 든 예문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국어와 영어가 동일한 피동구조인 경우로서 이제 그 문항별 응답자의 반응을 보면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다.²⁵

25. D. Terence Langendoen, *The Study of Syntax*,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69, pp. 6-10.

26. 여기에 제시한 문장은 피동구조와 관련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변형한 문장이나 가능한 범위에서 원문에 충실을 기했다. 이하에서 예시하는 문장도 동일한 요령에 의한 것이며 예시된 문장 다음의 괄호한 숫자는 그러한 문장을 쓴 group별 학생수 임.

(1) 이 꽃은 장미꽃이라 불리운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²⁷
(1) This flower is called a rose.	(75)	(100)
(2) This flower is named a rose.	(3)	(6)
(3) This flower is a rose.	(2)	(3)
(4) It is said this flower is a rose.	(0)	(1)
계.....	(80)	(110)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1) This flower is called as a rose.	(1)	(4)
△(2) This flower called the rose.	(0)	(1)
계.....	(1)	(5)

다. Unacceptable reponses.

(1)* This flower is known to a rose.	(2)	(2)
(2)* This flower is spoken a rose.	(3)	(0)
(3)* This is called to a rose.	(0)	(1)
(4)* This flower is called by the rose.	(1)	(0)
(5)* It is called that this flower is a rose.	(3)	(2)
(6)* We call that this flower is a rose.	(2)	(1)
계.....	(11)	(6)

라. 기 타 ²⁸	(8)	(29)
응답자 합계.....	(100)	(150)

2. 한 여인이 강도에게 살해 당했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A woman was killed by a robber.	(71)	(108)
(2) A woman was murdered by a robber.	(3)	(4)
계.....	(74)	(112)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1) A woman killed by a robber.	(5)	(12)
△(2) A woman murdered by the thief.	(1)	(0)

27. A집단이란 test 전에 학습한 집단이며 B집단은 학습하지 않은 집단의 숫자임. 이하 예시문에서도 동일함.

28. 기타는 응답자의 반응 중에서 영문으로서는 전혀 무가치한 반응을 보인 것을 종합한 항목임. 이하 예시문에서도 동일함.

계	(6)	(12)
다. Unacceptable responses,	(7)	(5)
(1)* A woman was died by a robber.	(7)	(5)
(2)* A woman killed to burglar.	(0)	(1)
(3)* A woman are killing by the thief.	(1)	(0)
계	(8)	(6)
라. 기 타	(10)	(7)
응답자 합계	(98)	(137)

△ 나—(1) 및 (2)는 하나의 sentence 로서는 불가하나 phrase 로서는 가능하다.

3. 하늘의 별이 밤에 보인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The stars in the sky are seen at night.	(53)	(41)
(2) The stars in the sky appear at night	(1)	(5)
(3) We can see the stars in the sky at night.	(5)	(16)
(4) The stars in the sky are found at night.	(0)	(1)
(5) The stars in the sky are watched at night.	(0)	(1)
계	(59)	(64)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none.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The stars in the sky look at night.	(6)	(9)
(2)* The stars in the sky show at night.	(3)	(7)
(3)* The stars in the sky see at night.	(9)	(13)
(4)* The stars in the sky seem at night.	(0)	(1)
(5)* The stars in the sky are looked at night.	(3)	(6)
(6)* The stars in the sky are shown at night.	(7)	(6)
(7)* The stars in the sky is seemed at night.	(1)	(0)
(8)* We can look the stars in the sky at night.	(0)	(1)
계	(29)	(43)

라. 기 타	(8)	(21)
응답자 합계	(96)	(128)

이 문항은 양국어가 동일한 피동구조이므로 피동표현에 의한 간접현상을 관찰하는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국어를 영어로 표현함으로써 국어의 구조를 얼마만큼 영어에 전이시키며 학습의 효과는 어떠한가의 문제를 취급하는 항목이다.

〈표 1〉

양국어 동일 구조인 경우

응답자 수		정답자 수		피동표현 오류수		그 외의 오류수		기 타	
A	B	A	B	A	B	A	B	A	B
294	415	220 (74.8)	303 (73.0)	27 (9.1)	22 (5.3)	21 (7.1)	33 (8.0)	26 (8.8)	57 (13.7)

※1. () 안 숫자는 백분율임.

2. A: 사전 지도를 받은 집단.

B: 사전지도를 받지 않은 집단. 이하에서 동일함.

표1에 나타난 정답자는 피동표현이든 혹은 그 외의 표현이든 간에 간섭의 영역을 벗어나서 주어진 cue에 합치되는 영문을 작성한 사람으로 test 전에 양국어를 대비하여 학습한 집단, A와 학습하지 않은 집단, B는 동일구조이지만 지극히 미세한 정도로 학습한 집단이 우세하다. 그러나 양국어를 동일 구조로 보고 피동표현을 할려고 한 점, 즉 양국어의 동일시 경향은 정답자수와 피동표현을 한 오류수와의 합계 83.6%와 78.3%로 약 5%정도가 더 간섭의 소지를 갖고 있다. 반면에 피동표현 이외의 오류는 학습하지 않은 집단이 1% 정도 우세하다. 이 점은 test 이전에 피동구조를 학습하지 않으므로서 피동표현 이외의 구조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의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예시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동 표현에 의한 오류는 양집단 모두가 피동구조 자체에 대한 오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휘 구사에 있어서의 오류이므로 구조 자체로만 관찰할 때 맞는다고 추정하면 교육의 효과는 약간 있다.

결국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test 전에 피동구조를 학습한 것은 양국어가 동일구조일 때에 facilitation이 되어 학습의 효과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intetereance의 소지를 확대해 놓은 결과로 보아야 한다.

(2) 국어의 피동태가 영어의 능동태로 나타나는 경우

국어에 있어서 피동태는 영어에서 반드시 피동태로만 나타나지 않고 능동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와 필요로 하지 않은 완전 자동사의 두가지 경우로 여기에서도 이 두가지 경우를 별개로 분리하여 분석 검토하기로 한다. 이 항은 국어와 영어가 모두 동일한 구조가 아니므로 유발해 낸 간섭현상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가) 국어의 피동태가 영어의 능동태(불완전 자동사)로 나타나는 경우

국 문

- 그의 누이는 행복한 것처럼 보였다.
- 차가 식기 전에 드시오.
- 그녀의 볼이 장미처럼 붉어졌다.

영 문

- Her sister seemed (to be) happy.
- Take the tea before it gets cold.
- Her cheeks went red as a rose.

d. 바다는 그의 앞에 밝고 한없이 펼쳐졌다. d. The sea *stretched* before him *bright and immesurable.*

e. 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다. e. My story *sounds strange*, nevertheless it is true.

위 예문과 같이 국어의 피동구조가 영어의 능동구조로 불완전 자동사로서 보어를 동반하고 표현되는 경우이다. 그 문항별 나타난 반응을 보면,

4. 그의 아내는 창백하게 보인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His wife looks pale.....	(47)	(56)
(2) His wife seems pale.	(6)	(28)
계.....	(53)	(84)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none.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His wife seems to pale.....	(2)	(11)
(2)* His wife looks like pale.	(1)	(12)
(3)* His wife shows pale.....	(0)	(1)
(4)* His wife is seemed to pale.....	(0)	(3)
(5)* His wife is seemed pale.....	(2)	(1)
(6)* His wife is seemed to be pale.....	(1)	(0)
(7)* His wife is seen pale.	(14)	(10)
(8)* His wife is shown pale.	(2)	(4)
(8)* His wife is shown pale.....	(2)	(4)
(9)* His wife is looked pale.	(2)	(4)
(10)* His wife is looked like pale.....	(1)	(1)
(11)* His wife is paled.	(1)	(0)
계.....	(26)	(47)

라. 기 타.....	(7)	(14)
응답자 합계	(86)	(145)

5.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My mother's face turned pale.	(6)	(20)
(2) My mother's face became pale.....	(17)	(48)

- (3) My mother's face got pale.(6) (8)
- (4) My mother's face was pale.(20) (26)
- (5) My mother's face looked pale.....(0) (5)
- 계(49) (107)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 △(1) My mother's face paled.(6) (1)
- △(2) My mother's face was paled.(24) (7)
- 계(30) (8)

다. Unacceptable responses.

- (1)* My mother's face came to pale.(0) (1)
- (2)* My mother's face was turned pale.(3) (5)
- (3)* My mother's face was become pale.(4) (1)
- (4)* My mother's face was gotten pale.(1) (0)
- 계(8) (7)

라. 기 타(11) (16)

응답자 합계.....(98) (138)

△나—(1)은 문법적으로 자동사의 과거형으로 주어진 cue에 합치하고 의미상으로 가능하나 실제 사용면에서 불가하므로 acceptables와 unacceptables의 중간에 위치한다.

△나—(2)는 문법적, 의미론적으로 가하나 실제 사용면에 있어서 불가하므로 acceptables과 unacceptables의 중간에 위치한다.

<표 2> 양국어 비동일 구조인 경우 [불완전 자동사]

응답자수		정답자수		피동표현 오류수		그 외의 오류수		기 타	
A	B	A	B	A	B	A	B	A	B
184	283	132 (71.8)	197 (69.0)	31 (16.8)	29 (10.2)	3 (1.6)	25 (8.1)	18 (9.8)	36 (12.7)

예시한 문장들로부터 작성한 표2에 나타난 바 학습한 집단은 학습하지 않은 집단보다 현저하게 피동표현에 의한 간접현상을 유발해 내고 있다. 반면에 피동구조 이외의 간접요인에 의한 간접현상은 이와 반대현상이다. 이 점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억이 오래된 지식을 구사함에 있어서 흥미해지는 경향으로 인해 피동구조 이외의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본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cue “~보인다”²⁹에 포함된 의미내용

(1)* The book is sold well.....	(54)	(59)
(2)* The book is bought well.	(2)	(1)
(3)* The book is sell very well.....	(17)	(20)
(4)* The book bought very well.....	(0)	(1)
라. 기 타	(2)	(10)
응답자 합계.....	(99)	(144)

△나—(1)은 한개의 sentence 로서는 불가하나 phrase 로서는 주어진 cue 에 문법적, 의미론적으로 가하다.

7. 아버지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The portrait of my father hangs on the wall.	(21)	(43)
(2) The porrait of my father is hung on the wall.....	(15)	(11)
(3) The portrait of my father is suspended on the wall.....	(1)	(1)
(4) The portrait of my father is on the wall.	(6)	(12)
계	(46)	(67)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none.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The portrait of my father is hanged on the wall.	(30)	(34)
(2)* The portrait of my father is hanged by the wall.....	(0)	(1)
(3)* The portrait of my father is hooked on the wall.....	(1)	(0)
(4)* The portrait of my father suspends on the wall.	(0)	(1)
계	(31)	(36)
라. 기 타	(8)	(14)
응답자 합계.....	(85)	(117)

8. 문이 열렸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The door opened.	(21)	(58)
(2) The door was opened.	(58)	(50)
(7) The door opened up.....	(0)	(1)
계	(79)	(109)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1) The door was open.	(13)	(31)
------------------------------	------	------

△(2) The door is opening.	(0)	(1)
계	(13)	(32)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The door has open.	(0)	(1)
계	(0)	(1)
라. 기 타	(6)	(15)
응답자 합계	(98)	(147)

△나—(1)은 주어진 cue와 완전히 합치하지 않으나 형용사 보어로서 상태를 나타낸다.

△나—(2)는 의미론적으로 열리는 과정을 나타내므로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예시한 문장에 나타난 오류 중에서 양집단 전체의 응답자에 대한 피동표현에 의한 오류는 32.7%로 여타의 어느 항목보다도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8.가. (2)는 문법성의 정도(degree of grammaticality)에 따라서 acceptable response로 받아들였지만 이를 엄밀한 의미에서 주어진 cue에 바른 문장이 아니라고 추정한다면 더욱 뚜렷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주어진 cue가 국어에 있어서 피동문이므로 영어로도 피동문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상태에 영어의 완전한 피동 구조에 있어서 by+NP_i의 형태를 생략한 형태와 대단히 흡사하므로 이러한 간접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간접현상이 확정되어진 것이라고 본다.³¹

〈표 3〉 양국어 비일등 구조인 경우[완전 자동사]

응답자수		정답자수		피동표현 오류수		그 외의 오류수		기 타	
A	B	A	B	A	B	A	B	A	B
282	408	186 (57.6)	261 (61.8)	104 (36.8)	115 (28.2)	0 (0)	3 (0.7)	16 (5.6)	39 (9.3)

표3에 보이는 바 학습한 집단은 36.8%로 학습하지 않은 집단의 28.2%보다 약9%가 높다. 이는 test 전에 학습한 집단이 국어의 구조를 영어에 현저하게 전이시켜 놓았다는 결과이다. 그리고 피동표현 이외의 간접요인에 의한 간접현상이 영(zero)에 가까운 것은 상대적으로 피동표현에 의한 간접현상이 심화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어가 비동일구조이며 목표하는 영어 자체내의 유사한 구조가 있을 때에는 간

31. They believed him honest. 의 피동문

→ He was believed honest (by+them)과

*The book is sold well (by+NP_i)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섭현상은 이중의 간섭요인에 의하여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학습의 효과적인 면에서 관찰할 때 test 전의 학습은 전항의 영어에 있어서 불완전 자동사를 포함한 능동 표현의 비동일 구조에서의 마찬가지로 간섭현상을 조장시킨 결과로 좋은 결과는 되지 못한다.

(3) 국어의 의미상 피동문이 영어의 능동태로 나타나는 경우

위 2개 항에서 국어에 있어서 피동문이 영어에 있어서 피동문 또는 능동문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를 분석 검토해 보았다. 이 항에서는 국어에 있어서는 구조상으로 보아 피동문은 아니지만 의미상의 피동문은 영어로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간섭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³²

구문상 및 의미상으로 확실한 피동구조를 문항으로서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설정한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이 반드시 문법체계에 확실한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문법적인 문장도 가르쳐지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이론상, 언어학 이론상 지극히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습할 당시의 학습여건에 따라서 변동가능하다는 생각에서이다.³³

국 문

- a. 끓는 물은 빨리 증발된다.
- b. 강이 작년엔 깊어졌다.
- c. 낙엽이 창가에 날렸다.

영 문

- a. Boiling water *evaporates* rapidly.
- b. The river *deepened* last year.
- c. The falling leaves *drifted* by the window.

위 외국어의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어의 타동사 혹은 자동사가 피동성(passivity)을 가짐으로써 그 자체의 의미가 피동의 뜻이되어 의미상 피동문이 되어 영어의 자동사로써 능동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³⁴

주어진 cue에 따른 문항별 반응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2. 李相億, “동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사동·피동성을 중심으로—” 제6회 언어연구회 발표 논문개요(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2. 10), p. 18 참조.

33. Wilga M. Rivers는 그의 저서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의 p. 16에서 Noam Chomsky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Chomsky distinguishes between two types of grammar. ‘A grammar in the traditional view,’ he says, ‘is an account of competence. It describes and attempts to account for the ability of speaker to understand an appropriate sentence on a given occasion. If it is a pedagogic grammar, it attempt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the ability; if a linguistic grammar, it aims to discover and exhibit the mechanisms that make this achievement possible.’”

34. 최현배, *우리말본*. p. 420 참조.

9.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It is getting darker and darker.	(0)	(2)
(2) It's getting dark.	(27)	(39)
(3) It becomes darker and darker.	(0)	(4)
(4) It becomes dark.	(3)	(11)
(5) It gets darker and darker.	(0)	(5)
(6) It gets dark.	(0)	(2)
(7) It is darker and darker.	(17)	(20)
(8) It grows dark.	(0)	(3)
(9) It is darker.	(1)	(2)
계	(48)	(88)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1) The weather darkens.	(2)	(4)
△(2) It is darker little by little.	(0)	(1)
계	(2)	(5)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It,s toward night.	(0)	(1)
(2)* It's being dark.	(8)	(10)
(3)* It is going to dark.	(0)	(3)
(4)* It is darking.	(8)	(14)
(5)* It gets darking.	(0)	(1)
(6)* It gets dark and dark.	(0)	(1)
(7)* It is dark and dark.	(3)	(1)
(8)* It is more and more darker.	(0)	(2)
(9)* It is more and more dark.	(1)	(2)
(10)* It is darkened.	(0)	(1)
계	(20)	(36)
라. 기 타	(22)	(18)
응답자 합계	(92)	(147)

나—(1)은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날씨가 어두어지다”는 의미가 되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2)는 문법적으로 가능하나 의미상으로 acceptables 과 unacceptables 의 중간에 위치한다.

10. 해가 서산으로 사라진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The sun disappears behind the western hill.	(21)	(28)
(2) The sun sets behind the western hill.	(21)	(46)
(3) The sun vanishes behind the western hill.	(5)	(11)
(4) The sun falls behind the western hill.	(7)	(6)
(5) The sun goes down behind the western hill.	(3)	(7)
(6) The sun sinks behind the western hill.	(0)	(1)
(7) The sun hides behind the western hill.	(0)	(1)
계	(57)	(100)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none.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The sun abolishes behind the western hill.	(0)	(1)
(2)* The sun comes down behind the western hill.	(0)	(2)
(3)* The sun sits in the west.	(1)	(1)
(4)* The sun is going to west.	(0)	(1)
(5)* The sun is set behind the western hill.	(8)	(2)
(6)* The sun is vanished behind the western hill.	(1)	(0)
(7)* The sun is fallen behind the western hill.	(12)	(2)
(8)* The sun is disappeared in the west.	(3)	(0)
(9)* The sun is gone in the west.	(2)	(0)
계	(27)	(9)

라. 기타

응답자 합계

11. 설탕 값이 곧 떨어질 것이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The price of sugar will drop soon.	(1)	(5)
(2) The price of sugar will fall soon.	(16)	(35)
(3) The price of sugar will go down soon.	(5)	(10)
(4) The price of sugar is going to fall soon.	(1)	(0)

계(23) (50)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1) The price of sugar will be low.(0) (2)

△(2) The price of sugar will be cheap.(1) (3)

△(3) The price of sugar will be dropped.(0) (3)

계(1) (8)

다. Unacceptale responses.

(1)* The price of sugar is fallen soon.(8) (14)

(2)* The price of sugar will be fallen.(19) (8)

(3)* The price of sugar will be going to low.(0) (3)

(4)* The price of sugar will get down.(1) (0)

라. 기 타(1) (27)

응답자 합계.....(65) (110)

△나—(1)은 문법적으로 가능하며 의미상으로 “The price of sugar will be lower.”였으면 더 좋은 문장이었을 것이다.

△나—(2)는 나—(1)과 동일하게 “The price of sugar will be cheaper.”였으면 더 좋은 문장이었을 것이다

△나—(3)은 문법적으로 가능하나 주어진 cue와는 의미상으로 모호하여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위 예시문에 보여 주듯이 계사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국어의 피동구조를 영어에 전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간접요인에 의한 것들이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9. 다. (2), (3) 및(4)는

I am going to school.

I am remaining in America till after the election.

Are you going to wait there all day?

등의 현재진행형 구조를 답습하고,

9. 다. (6) 및 (7)은

Break, break, break,

On thy cold grey stones, O sea!

와 같은 문장에서와 같이 단어의 반복 사용에 의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로 옮겨 놓고 있다.

9. 다. (8) 및 (9)는

12.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혼잡했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 단	B집 단
(1)	The street was crowd with many people.	(9)	(14)
(2)	The street was full of many people.	(2)	(8)
(3)	The street was in great confusion with many people. ...	(0)	(1)
계	(11)	(23)
나. Partially acceptabe responses.			
△(1)	The street crowd with many deople.	(1)	(8)
△(2)	The street was crowd by many people.	(17)	(20)
△(3)	The street crowd in many people.	(0)	(1)
△(4)	There are many crowds in the street.	(2)	(2)
계	(20)	(29)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The street was crowd for many people.	(0)	(1)
(2)*	The street was crowd in many people.	(0)	(1)
(3)*	The street was crowd of many people.	(1)	(2)
(4)*	The street was crowd many people.	(2)	(3)
(5)*	The street was confused by many people.	(5)	(7)
(6)*	The street was confused many people.	(1)	(4)
(7)*	The street was bewidered by many pple.	(1)	(0)
(8)*	The street was rushed by many people.	(2)	(0)
(9)*	The street wes, become complicated by many people. ...	(1)	(0)
(10)*	The street crowd by many pepple.	(0)	(2)
(11)*	The street confused with many people.	(1)	(2)
(12)*	The street confused by many people.	(0)	(5)
(13)*	The street was confusion many people.	(1)	(1)
(14)*	The street was busy by many people.	(2)	(8)
계	(18)	(38)
라. 기 타	(18)	(27)
응답자 합계	(67)	(117)

△나- (1)은 phrase로서 가능하다.

△나- (2)는 문법적으로 가능하나 주어진 cue와는 의미상으로 모호하여 부분적으

로 가능하다.

△나—(3)은 phrase 로서 가능하다.

△나—(4)는 문법적으로 가능하나 의미상으로 모호하여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13. 모든 학생들이 그 결과에 만족했다.

	A집단	B집단
가. Acceptable responses.		
(1) All the students were contented with the result.	(3)	(8)
(2) All the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13)	(31)
(3) All the students were satisfied by the result.	(15)	(1)
(4) All the students were pleased with the result.	(3)	(2)
(5) All the students contented themselves with the result. ...	(0)	(3)
(6) All the students were satisfied at the result.	(4)	(0)
(7) All the students were satisfied in the result.	(1)	(3)
계	(39)	(47)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1) All the students satisfied with result.	(1)	(4)
△(2) All the students satisfied in the result.	(3)	(2)
△(3) All the students satisfied at the result.	(1)	(2)
△(4) All the students contented with the result.	(3)	(11)
계	(8)	(19)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All the students were satisfied as the result.	(1)	(1)
(2)* All the students were satisfied of the result.	(1)	(0)
(3)* All the students were satisfied the result.	(6)	(10)
(4)* All the students were contented as the result.	(1)	(0)
(5)* All the students were contented the result.	(0)	(2)
(6)* All the students satisfied on the result.	(0)	(3)
(7)* All the students satisfied about the result.	(0)	(1)
(8)* All the students satisfied the result.	(11)	(11)
(9)* All the students contented the result.	(2)	(5)
(10)* All the students contented on the result.	(0)	(2)
계	(22)	(35)
라. 기 타	(20)	(28)

응답자 합계.....(89) (129)

△나-(1), (2), (3) 및 (4)는 주어진 cue에 phrase로서 가능하다.

예시한 문항들에서 작성한 표 5에 의하면 간접의 영역을 초월하여 영문을 작성한 비율은 학습한 집단보다 학습하지 않은 집단이 약간 높다. 피동표현에 의한 오류는 양집단 모두가 학습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리고 피동표현 이외의 간접요인에 의한 간접현상은 학습하지 않은 집단이 약간 높은 편이다.

<표 5> 국어의 능동태가 영어의 피동태인 경우

응답자 수		정답자 수		피동표현 오류수		그외의 오류수		기 타	
A	B	A	B	A	B	A	B	A	B
156	246	78 (50.0)	118 (52.0)	21 (13.4)	33 (13.4)	19 (12.2)	40 (16.3)	38 (24.4)	55 (22.3)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국어로 제시된 cue가 능동문인데 비하여 영어로서는 피동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을 피동구조로 표현하려고 했으나 오류를 저지른 경우는 예시문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동표현 자체가 구문적인 면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고 어휘의 구사에 있어서 틀려진 것이므로 구문적 간접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으로서 물론 틀린 문장이지만 구문상의 간접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분석되어야 할 사항은 간접의 영역을 벗어난 대상과 피동구조로 표현한 대상의 합계를 놓고 관찰하여야 한다.

표5에 나타난 바 학습한 집단은 학습하지 않은 집단보다 오히려 2%가 낮다. 피동표현에 의한 오류는 13.4%로 동일하다. 이러한 점은 학습한 집단이 test 전에 양국어를 대비하여 학습했으므로 국어가 피동구조인 문항은 주어진 cue에 맞추어 양국어를 동일시하여 자신있게 답할 수 있었으나 주어진 cue가 국어의 능동태이므로 구조가 상이한 점에 당황하고 확실한 파악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아진다. 반면에 학습하지 않은 집단은 교육을 받지 않음으로써 피동구조 하나에만 집착하지 않고 여러가지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오히려 국어에 있어서 능동구조일 때에는 학습한 집단보다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 집단간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음은 교육의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test 전의 학습이 양국어가 동일한 피동구조이었을 때 보여준 것만큼은 양국어가 비동일 구조일 때에는 효과가 없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국어의 피동문이 영어의 피동문으로서 bare infinitive 가 to-infinitive 로 나타나는 경우

a. 강물이 비로 인해 불게 되었다.

a. The rain made the river rise.

→The river was made to rise by the rain.

b.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뉴우톤에게
보이었다.

b. Newton saw an apple.

→An apple was seen to fall by Newton.

이 문항은 영어의 능동태 문장의 finite verb가 사역동사 혹은 지각동사이었을 때 objective complement로 쓰인 bare-infinitive가 피동변성에 의하여 to-infinitive로 바뀌어 나타나는 피동문과 국어의 피동문과를 연관시켜 위에서 분석 검토한 양국어 상호간의 구문적인 동일구조 또는 비동일구조를 떠나서 국어에 비하여 복잡한 영문의 피동변성에서 일어나는 간접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이다. 그 반응은 다음에 예시하는 예시문과 같다.

(14) 새들이 나무 위에서 우짖는 소리가 들린다.

가. Acceptable responses.

A집단

B집단

(1) We hear thebirds singing in the tree.	(2)	(3)
(2) We hear the birds sing in the tree.	(4)	(7)
(3) Birds are heard to sing in the tree.	(7)	(9)
(4) We hear the song of birds in the tree.	(2)	(3)
(5) The song of birds is heard in the tree.	(5)	(2)
계	(20)	(24)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none.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We hear birds to singing the tree.	(0)	(1)
(2)* Birds' singing is heard on the tree.	(5)	(4)
(3)* I hear that birds are singing in the tree.	(5)	(7)
계	(10)	(12)

라. 기 타

응답자 합계.....(67) (98)

예시문에 나타난 바 응답자수는 이상의 다른 어떠한 문항보다도 가장 적은 165명으로 대상인원에서 거의 100명에 가깝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어진 문항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주어진 문항 “새들이 나무 위에서 우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 내면적인 구조가 “새들이 나무 위에서 우짖는다.”와 “우짖는 소리가 들린다”의 두 문장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구조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어에 있어서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능동태 문장은 한 sentence 내에 embedding sentence를 포함한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embedding sentence의 표현은 역시 여러가지로 가능하다.³⁵ 이러한 표현의 가능성은 본래 예상했던 피동구조와는 달리 예시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결국 학습한 집단이건 학습하지 않은 집단이건 피동구조에 있어서 to-infinitive의 형태가 문제되지 않고 embedding sentence의 처리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 문장 전체로서의 구조가 복잡한 데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6) 국어의 피동태가 영어의 피동태로서 주어가 명사절인 경우

국 문

영 문

a.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지다고
믿어졌다.

a. In the olden times they believed that
the earth was square.

→In the olden times *it was believed that*
the earth was square.

b. 우리의 조상들은 용감하고 슬기롭다고
생각되었다.

b. We thought that our forefathers were
brave and wise.

→*It was thought that* our forefathers were
brave and wise.

예문과 같이 영어의 능동태에 있어서가 NP₂가 명사절로 이루어졌을 때 피동변성에 의하여 NP₂가 주어로서 길어지면 형식주어(formal subject) "it"을 앞세우고 진주어(real subject)를 뒤로 보내어 표현하는 경우에, 양국어의 구조적인 간접현상의 관찰보다는 국어에 비하여 복잡한 피동변성의 과정에서 NP₂의 처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이다.³⁶

(15) 금년 겨울에는 눈이 적게 올 것이라고 말해진다.

가. Acceptable responses.

37

(1) It is said that we shall have little snow this winter.(59)

(2) They say that we shall have little snow this winter.(26)

(3) I hear that we shall have little snow this winter.(1)

계.....(86)

35. Sense group의 표현은 그 문장 내에서 clause로 혹은 phrase로도 가능하다. 그 의미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가 clause나 phrase나에 따라 문장 전체의 구조가 달라진다.

36. 국어에서 “~라고 말한다” “~라고 믿는다”는 “~라고 말해진다” “~라고 믿어진다”보다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They say that~.” “They believe that~.”보다는 “It is said that at~.” “It is believed that~.”이 더욱 자연스럽게 많이 쓰인다.

37. 본 항의 () 안 숫자는 양집단을 합한 수치임.

나. Partially acceptable responses: none.

다. Unacceptable responses.

(1)* It is told for us to have little snow this winter. (6)

(2)* The people speak, "we shall have litte snow this winter." (1)

계 (7)

라. 기 타 (81)

응답자 합계 (174)

이 문항의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응답자 147명 중 정답자 86명, 오답자 및 기타 항의 합계 88명으로 약 5 : 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개별 반응을 보면 예상했던 It~that-clause의 구조로 표현한 것이 59명, 능동구조로 표현한 것이 27명으로 간접의 영역을 벗어난 대상이 약 50%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한 88명 중의 90% 이상이 문장으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는 기타항에 속하는 점으로 보아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은 피동구조에 대한 문제정보보다는 that-clause의 처리가 더욱 어려웠고 문장 전체로서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그 원인이 있지 않다가라는 생각이다.

(7) 피동구조에 있어서 과거분사

이제까지는 양국어의 구조 자체에 관한 간접현상에 대하여 분석 검토해 보았다. 영어의 피동태 표현에 있어서 그 구조 자체를 몰라서 오류를 저지르는 일면이 있으나 표현 과정에서 과거분사의 어형변화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으로 틀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Test 문항 3번 "책이 잘 팔린다."를 영어로 표현한 오류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된다.

The book sells well.에 대해서

(가)* The book *is selled* well.

(나)* The book *is sell* well. 등으로 나타난다.

(가)의 경우,

국어의 주어진 cue에 맞추어 완전 자동사로 표현해야 할 것을 피동구조로 표현한 것은 물론 잘못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어지는 점은 피동구조에 있어서 과거분사의 어형변화 문제로서 그 피동동사 구조 be+VT+en의 과거분사를 마치 규칙동사의 과거분사를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점은 양국어의 구문적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영어 자체내의 유사한 내면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간접현상이다.

(나)의 경우,

Be동사 다음에 sell란을 써 놓은 것은 흔히 주어 다음에 be동사가 따르는 문장을 많이 접하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be가 삽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규칙동사의 과거분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과거분사를 모르므로 그대로 놓아둔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test 문항 전체에 있어서 국어의 피동구조를 영어의 '피동구조로 전이시킬려는 두드러진 경향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피동표현의 미완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거분사만의 오류가 (1)과 (2)를 합하여 72개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 문항 전체의 오류 173개의 약 41%로 상당히 심각한 반응이다. 더구나 이 단어가 실험 대상인원의 어휘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어의 '피동동사의 형성은 3 가지 유형으로 동사 다음에 피동보조어간을 삽입하던가 혹은 피동어미를 붙이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데 반하여 영어의 피동동사의 구조는 be동사의 변화형에 과거분사에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좀 복잡한 방법이다. 또한 과거분사가 규칙동사가 아니고 불규칙 동사인 경우에는 그 변화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 놓을 수는 있으나 일정하지 않으므로 하나하나의 변화형을 기억하여 구사해야 하는 복잡성을 내포하므로 더욱 이러한 현상의 증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⁸ 이러한 점들은 국어와 영어를 비교하여 영어가 훨씬 복잡하여 일어나는 간접현상이기도 하지만 영어 자체내의 유사한 구조에 의한 간접 현상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한가지 첨가해야 할 사항은 피동구조에 있어서 be동사의 어형변화 문제이다. be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 그 문장의 시제(tense)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변화가 따른다. 이러한 점도 피동문이 좀더 복잡 다양해지면 양국어의 구조의 상이로 인한 간접현상이 유발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³⁹

이상으로 test 문항에 따른 반응의 내용별로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젯점들은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나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 여하를 불문하고, 상당한 문제 제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모국어인 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써 오는 동안 국어의 언어체계가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비단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장애를 받기 마련이다. 국어와 영어의

38. Questionnaire에 주어진 동사의 어형변화가 불규칙한 것은 단 하나 "sell" 밖에 없으므로 이 문항을 택한 것이다. 오답자 중에는

see→seened
fall→falled
buy→buiied,
sell→sold→solt

→solded 등도 나타난 수가 상당히 있었다.

39. 동사의 시제가 현재, 혹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형태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단수 복수의 구별이 어려운 주어, 완료형 피동태, 진행형 피동태, 위의 양자 혹은 3가지의 결합된 피동태는 더욱 그러하리라고 본다.

The people are (is) over the mountain.

She has been died for years.

The house is being built.

English shal have been being learned for five years next March. etc.

피동구조의 상이(相異)에서 오는 문젯점을 종합하면,

영어의 피동변성의 모든 과정이 국어보다는 어렵고, VT+en의 구성이 복잡할 뿐더러 특히 VT+en의 어형변화와 be의 어형변화가 곁들여 더욱 커다란 난점을 만들며, 같은 뜻의 국어와 영어의 두 단어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의 구분이 달라서 피동변성의 가능성 여부를 알기 힘들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피동화에 “be”의 삽입도 문제가 되며 주어 혹은 목적어가 한개의 문장인 경우에 피동변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피동구조에 따른 문젯점들은 피동문을 배우고 가르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로서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 유의사항에 맞추어 적의 적절한 교수방법의 도입으로 해결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VII. 결 론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애로되는 점이 없을 수 없다. 더우기 우리의 인근 국가에서 사용하는 동일어족도 아닌 전혀 다른 어족에 속하는 영어를 배우는 때에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영어교육에 많은 시간과 집중된 투자로 어느 정도 향상의 도를 기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중의 극히 일부로 국한된 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상층에서 빚어지는 간섭현상을 양국어의 피동구조를 중심으로 간섭현상은 무엇인가, 이 간섭현상을 대조분석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고,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 있어서 예상되는 간섭현상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questionnaire 및 test 문항을 작성했다. 이의 기초작업으로 국어와 영어의 피동구조를 영어교육론적인 입장에서 대조분석을 하고, 이 기초 위에 피동구조와 관련성 있는 항목을 6개의 범주로 묶어 test한 결과를 문항별 오류를 중심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간섭 현상이란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 언어를 이미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언어구조와 목표 외국어의 구조상 상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또한 목표 외국어 자체내의 구조를 사전에 습득하고 있음으로써 그와 유사한 구조를 배울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문화적 배경 및 목표 외국어의 문화적 배경과의 차이에 의한 간섭현상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어와 영어의 피동구조를 중심으로 나타난 간섭현상의 양상을 정리하면,

한 언어의 구조를 습득하고 나서 다른 언어의 구조를 배울 때에는 양국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양국어가 동일한 피동구조일 때에는 간섭현상의 폭이 줄어들고, 비동일 구조인 경우에는 간섭현상의 폭이 넓어지고 피동구조 이외의 간섭요인에 의한 간섭현상이 병발한다. 또한 영어 자체내의 유사한 구조를 이미 습득하고 있으므로 일어나는 간섭

현상은 양국어가 동일구조일 때보다 비동일구조 때에 더욱 많이 개입된다.

집단별로 보면 test 전에 피동구조를 대비하여 학습한 집단과 학습하지 않은 집단은 간접현상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나 교육을 받음으로써 동일시로 인한 간접현상의 소지는 학습한 집단이 더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비동일구조일 때에는 학습한 집단이 피동표현에 의한 간접현상이 두드러지게 강한 반면에 학습하지 않은 집단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또한 학습한 집단의 피동표현에 의한 간접현상은 그 외의 간접현상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test 전의 학습은 양 집단의 간접현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사가 대조분석을 기초로 하여 학습할 당시에 국어의 자동사가 피동성(passivity)를 포함하여 의미상 피동태가 되는 경우와 영어의 계사표현이 국어의 피동구조로 표현되는 경우를 지적해 주지 않는 한 간접현상을 촉발 조장시킨 결과가 되어 교육적인 면에서 좋다고 할 수 없다. 이 대안의 하나로 국어가 모국어이므로 학습자들에게 철저히 이해되어 있는 듯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므로 국어의 피동구조 및 그에 관련된 의미상의 피동문에 관한 사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교재편찬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영어의 피동구조 및 계사에 관한 항목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하다.

Abstract

This report deals with the structural interference expected in learning English in high school with the emphasis on the passive voice of Korean and English. The testing method to find the interference is to let students translate the Korean passive sentences, which are considered the regular passive in Korean, and which are thought to be the passive in meaning, etc. into English.

The basic work is made up of the nature of interfer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rference and the contrastive analysis, and the pedagogically methodological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and English passive voice and the making the test items.

Also the studen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has learned Korean and English on the basis of the contrastive analysis before the test, the other has not learned. The results in testing the items are concluded:

1. When Korean and English are of the same passive voice, the interference is decreased, while it is increased when they are not of the same passive voice, and the interferences by the other interfering causes occur at the same time also.
2. When they are of the same structure, the interference by having acquired the similar structure in English itself intervenes much more than when they are not.
3. There appears to be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hen they have learned the same structure. But when they have not learned the same structure, the former group shows the interference by the passive expression more strikingly. Moreover the latter group shows interference in a lesser proportion than the former. The proportion of the interference by the passive expression of the former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interferences by other causes. When the students learn the passive voice on the basis of contrastive analysis of both languages, the learning before the test is not as good as we have expected, in so far as the teacher does not point out the case in which the Korean intransitive verbs with passivity appear like the passive voice and the case in which English with the copula is expressed to be the passive voice in Korean.

Bibliography

- Allen, Harold Byron. *Readings in Applied English Linguistic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4.
- .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5.
- Curme, George O. *Syntax*. Boston: D.C. Heath and Company, 1931.
- Fodor, Jerry A. and Katz, Jerrold J. *The Structure of Language*.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64.
- Fries, Charles C.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5.
- Gleason, H.A., Jr.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 Jacobs, Roderick A. and Peter S. Rosenbaum. *English Transform ational Grammar*. Mass. Blaisdell Publishing Company, 1968.
- Jespersen, Otto.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8.
- Lado, Robert.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Inc., 1964.
- . *Language Testing*,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Ltd., 1967.
- .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Rivers, Wilga M.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Chigago: The University of Chigago Press, 1968.
- Rutherford, William E. *Modern English*.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8.
- Zandvoort, R.W.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69.
- 金敏洙. 國語文法論. 서울: 一潮閣, 1971.
- . 新國語學. 서울: 一潮閣, 1971.
- 大内茂男. “干涉について” 現代英語教育. 東京: 研究社, (1966) Ⅲ, 7 & 9.
- 明魯勤. “外國語學習에 있어서의 音韻障害” 영어영문학(한국영어영문학회) 36 (1970)
pp. 129—136.

朴贊癸. 統計學講義. 서울: 一潮閣, 1968.

英美語學文學叢書 (8). 英語學概論. 신구문화사, 1967.

————— (9). 英文法概論. 신구문화사, 1967.

李季順. “Contrastive Analysis의 理論과 方法” 言語教育.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I, 1. (1969) pp. 40~49.

李相億. “動詞의 特性에 對한 理解: 사동·피동성을 中心으로” 第六回 語學研究會 發表論

文 概要.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2.

趙明源. “Contrastive Analysis의 한계” 어학교육.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I (1969)

pp. 27—49.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1961.